

[요약] LET THEM EAT COAL

Why the G7 must stop burning coal to tackle climate change and fight hunger

G7 국가들이 기후변화와 기아를 심화시키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해야하는 이유

올 12 월 파리에서 중요한 기후(변화)협약이 열릴 예정이다. 6 월 독일에서 열렸던 G7 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과 G7 의 합의는 12 월 파리에서 돌파구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G7 에서의 명확한 리더십이란 자국의 유해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를 위한 재정을 증원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Why the G7 must kick their coal habit?

왜 G7 은 그들의 석탄 사용 습관을 버려야만 하는가?

석탄은 산업혁명 이후로 전체 탄소배출량의 1/3 을 차지해온, 심각한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기후변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기후변화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화력발전소는 이상기후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수확량 감소와 식량가격 인상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굶주리게 만든다. 사실 가장 가난하고 식량확보에 취약한 사람들일수록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노출되기 때문에, 석탄을 태우는 화력발전 자체가 불평등을 더욱 더 심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는 인류가 지난 수십년 간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옥스팜은, 기후분석(Climatic Analytics)의 새로운 모델과 AD-RICE2012 모델을 사용하여, 현재 정책 기준으로 G7 에서 배출하는 이산화 탄소량이 아프리카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2080 년까지 매년 430 억 달러, 21 세기 말까지는 매년 840 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G7 국가들에게 이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비용은 실제로 G7 국가들의 아프리카 농업·농촌 개발 원조 금액의 60 배에 달하며, G7 과 아프리카 사이의 국가간 원조(bilateral aid) 전체의 3 배가 넘는 금액이다. 또한 G7 의 석탄배출 비용은 2080 년까지 매년 2600 억 달러에 달할 것이고, 21 세기 말에는 4500 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현재 G7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만으로는, G7 의 석탄배출로 인해 2080 년에는 1980 년과 비교하여 주요 작물 생산량이 전 세계적으로는 0.5 퍼센트,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1 퍼센트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결국 이것은 증가하고 있는 인구수에 비해 식량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산술적으로 볼 때 매년 700 만 톤의 수확량이 손실되는 것과 같다.

물론 오늘날 석탄 소비의 절반 이상이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G7 국가들 역시 여전히 막대한 양의 석탄을 소비하고 있다.

G7 국가들의 화력발전소들이 모두 하나의 국가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나라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나라가 된다. G7 국가들은 화력발전소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의 전체 화석연료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두 배에 달하는 양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는 기타 48 개 국가들의 배출량의 10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2015 년 기후협약회의를 주최한 독일을 포함한 G7 의 다섯 국가들은 2009 년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 이후로 실제로 더 많은 석탄을 태우고 있다.

G7 국가들은 이러한 석탄연료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감으로써 더 이상 말로만 하는 변화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는 변화를 이뤄 나가야할 것이다.

G7 국가들이 현재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을 선도해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에 있다. G7 국가들이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여 저탄소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우선된 정치적 과제를 밝히고, 탄소 배출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면서도 동시에 건강한 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유한 국가들은 자신들의 석탄 사용 습관을 버리는 일에 지금 당장 앞장서야 할 것이다.

How the G7 can kick their coal habit

그렇다면, 어떻게 G7 이 그들의 석유 사용 습관을 버릴 수 있는가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나 ‘탄소 가격제’와 같은 현재의 G7 의 정책은 자국에서의 탄소 배출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했다. 재생에너지 사용이나 전체 배출량 감소와 같은 목표만으로는 석탄 사용이 줄어들지 않는다.

독일과 영국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석탄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의 개입 없이는 석탄 문제는 계속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노력을 저하시키는 문제로 남을 것이다.

옥스팜은 싱크탱크(think-tank) E3G 을 통해 모든 G7 국가 내부의 현재 석탄 사용 현황을 토대로 시장 동향과 정책 방안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석탄 사용을 줄여나갈 타임라인을 작성하였다. 화석연료사업 기득권에 맞서는 정치적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전환은 빠르게/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향후 10 년 안에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에너지 전력망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잘 계획된 변화는 결국 경제 성장, 보건증진, 고용창출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어, 100 퍼센트 재생에너지 사용으로의 적절한 변화가 이루어지면 미국에서 65 만 개의 친환경 일자리가, 유럽연합(EU)에서는 43 만 개의 친환경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수 있다.

권고사항

G7 정상들은:

1. 수그러들지 않는 석탄 사용량의 긴급전환을 시행해야 한다. 어떤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기간 안에 각 국가의 특정계획과 정책들의 전환이 반드시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 캐나다: 2030년까지
- 프랑스: 2020년까지
- 독일: 2040년까지
- 이탈리아: 2020년 초까지
- 일본: 2035년까지
- 영국: 2023년까지
- 미국: 2030년까지

2. G7 국가들은 2020년 이전에 공공재정을 높이기 위해 명백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